

출가·열반절(불교도 경건주간) 특집

“무집착 출가정신 인류평화 기여”

3월 26일(음 2월8일)부터 다음달 2일(음 2월15일)까지는 불교도 경건주간이다. 부처님의 출가일과 열반일을 잇는 이 기간동안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는 다양한 행사와 정진법회를 개최한다. 불기 2540년 불교도 경건주간을 맞아 진월스님

캘리포니아 주립대 불교학자 자이니교수 인터뷰 **대담: 진월스님**

진월: 부처님의 출가가 갖는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전생애 없었던 출가

자이니: 부처님 출가의 중요성은 그의 보살행뿐만 아니라 교육자적 삶에 중심이 되는데 있습니다. 이는 그의 전생애 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건입니다. 상좌부 본사나 오백여 전생(자타가)에서도 전생애 그가 출가하여 수도승이 되었었다는 경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나 왕자, 무사, 어떤 때는 코끼리나 사자같은 동물도 되기도 했고, 비록 한때 고행자(타파스)나 비불교적 유랑자였던 이야기는 있으나 출가자였던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의 이 첫번째 출가 수행자 됨은 과거의 계명

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출가정신은 옛날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실용에 있어서 집착을 버리는 태도의 유지는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무집착의 생활태도는 가정에 있으면서도 수도자의 독신생활을 꼭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절개의 생활로 인도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주요한 세상사들에 관여하면서도 그 출가정신을 상충에 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특히 서양에서는 서양적 가치가 우세하며 수많은 출가 독신 수도자들을 뒷받침할만한 사회가 필수 없을 것으로, 아마 사회가 저들을 위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었지만, 저들이 독자적인 자조자립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독신 수도자들의 출가와 같은 형식의 강조는 줄어들겠지만 가정생활속에서도 무집착 정신의 강조는 증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생활에서의 출가정신을 살려내는 데 비중이 두어질 것입

기여해야 합니다. 저들은 가족중심의 종교로서 독신수행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공동체사회가 후원하는 출가자로서의 일을 하는 독신 수행자와 유대인들은 캄비틀처럼 상담이나 훈육하는 결혼한 교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가톨릭에 출가자적 일을 하는 독신 수행자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나 불교의 수행자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신과 청빈을 서원하지만 특별한 정신적 목적보다는 봉사(봉사)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지향이 다릅니다. 무승리의 경우, 이런 성격의 수행을 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비록 겸손한 생활을 하는 성인들을 갖고는 있으나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를 강조합니다. **진월:** 반열반(Parinirvana)은 무엇을 뜻하며, 우리들은 이를 어떻게 우리의 생활속에서 이해하여야 되었습니까?

생사윤회 끝난 반열반

자이니: '반열반'이란 말은 때때로 '열반'의 뜻으로 쓰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열반'과 '반열반'의 구별을 하여야겠습니다. 비록 이 말들이 때때로 동의어로 쓰이지만 거기에는 두 단계가 있습

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한 단계에서 사람을 구성하는 오온이 해체되고 인과의 사슬에 따라 다시 생성되거나 출현하지 않게 됩니다. 이 윤리적 재생을 최후로 제거함이 두번째 열반으로서 '반열반'으로 불리며 '집대성한 전번적 혹은 종재적' 완전을 뜻합니다. 즉 이 반열반을 성취한 이에게는 생사윤회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의 어디에서 시작하더라도 열반에 부



○ 불기 2540년 출가·열반절을 맞아 진정한 출가·열반의 의미와 그 현대적 해석을 세계적인 불교학자 자이니교수(사진 우)에게 물어보았다. 진월스님이 만났다.

부터 보살의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역사적이지만 그분이 불교의 창시자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양인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불교가 창시된 것이고 불교인들이 불교의 시작이 전혀 없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월: 다가오는 21세기에 불교의 상용성은 어떻습니까?
자이니: 불교는 두가지 이유로 가장 인장받을만한 종교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 과학에 기초한 진화론 등에 의해 창조론적 교의에서 발생한 제도화된 종교들이 반대를 당하는 오늘날, 불교는 창조론의 교의로부터 자유롭고 합리적 관점들에 유익하며 다른 설립종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연하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다른 이들의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타적 보살사상이 보태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 자체

〈자이니교수 약력〉

1946 인도 봄베이대학 법학-캘리포니아 대학 스리랑카 불교학 석사
1958 영국 런던대학 불교 문학석사
1962-63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불교학 석사
1966-67 인디애나 대학 불교학 석사
1972-현재 캘리포니아 주립대 불교학 박사학위 교수
〈저서〉(공역) 〈서문〉(공역) 〈자이니교의 정제〉(공역) 〈불교의 탄생〉(공역) 〈불교의 기원〉(공역) 〈동양의 사상의 불교학〉(공역) 〈바수반두 이론에 대하여〉 등 불교의 자이니교 분야를 중심으로 100여권의 논문 발표

“기독교에는 출가제도가 없습니다
가톨릭도 독신·청빈을 서원하지만
봉사에 의미를 더 뉘 지향이 다릅니다”

이나 보시 좌선 등 여타 행위 등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또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의 출가가 부인이나 부모님을 등극의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개인적 손실이나, 차츰 혹은 한결의 결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보다 앞서 있었던 내가지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는 충격적 광경이었습니. 왜냐하면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바로서 그에게 노출되지 않았던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몹시 괴로워하는 병자와 늙은이, 죽은이와 수도자를 보고 위대한 출발의 계기를 가졌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들로 부터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그에게 보편적 고통을 받는 계기와 신안을 여는 비상한 사건이었습니. 그러므로 그의 출가는 보편적 중요성을 띤 사건이지 개인적 사건이 아닙니다.

진월: 현대 세계에서 종교적 수행을 위한 출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었습니까?

자이니: 생노병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물론 다

나. **진월:** 불교와 비불교간에 출가정신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은 어떻습니까?
자이니: 불교는 인도종교의 하나로써 인도에서 발생한 다른 종교들, 특히 특정한 기간에 가정을 떠나는 제도가 있었던 베다를 믿는 힌두교와 자이니교 등의 공통적 수행을 따랐었습니다. 그 두 종교들엔 일반 신도들이 외호하는 남녀 출가 수행자들의 제도가 있어 왔습니. 힌두교도들 가운데는 어떤 조직으로 연합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 사회에서 존중되고 후원되던 수행 수천의 남녀 독신 수행자들(대부분은 남성들이었지만)이 있었습니. 다른 세계종교들(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을 보면 세상을 떠나 온돈하는 이들을 후원하지 않아 왔습니.

나. 경전에 의거해 보면, 첫 단계는 정각(Bodhi)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 정각의 성취는 이 자체로 열반의 성취로 불립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생사의 윤회를 일으키는 모든 번뇌나 부정함 욕망들이 제거되었음을 뜻합니다. 즉 열반의 성취가 정각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열반이며 진정한 열반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를 이루고 나서도 부처님은 사십 여년을 더 사셨고 팔십 세에 돌아 가셨습니. 그 동안에 그분은 아직도 육신의 요구에 따른 사람의 삶을 사셨고, 그러한 삶이 이 세상에 유익하게 계속 되었습니.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더 이상 재생의 가능성이 없습니. 왜냐하면 재생의 결과를 야기할 원인이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적으로 연결되는 이 수행의 길을 이해해야 되었습니. 급성이 아니면 내생애라도 열반을 성취목표로 해야겠습니. **진월:** 서양의 불교인들은 부처님의 출가와 반열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이니: 이는 말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그 사건들을 통해 부처님이 불교의 창시자가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부처님 이전에는 누구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처님은 불교의 창시자입니다. 서양학자들은 부처님이 불교라고 알려진 진리를 발견하신 한 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시작이 없는 부처님 계통에 더해진 또한 분의 부처님으로 봅니다. 상좌부 교설에서는 부처님이 맞잡전의 연등불 때

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행·전법 장소와 돌아간 곳 등 일생에 관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역사적 인물이지 전설적 인물이 아닙니다. 영원의 부처님은 '법의 영원성'을 뜻합니다. 그것은 법(다르마) 이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교설의 제1 원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신의 실상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이를 아디(Adi)부처님(본각)이라고 하는데 아홉불등 수많은 부처님은 선교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여래'가 나시던 안나시던 이 법의 성품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신 한 개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시작이 없는 부처님 계통에 더해진 또한 분의 부처님으로 봅니다. 상좌부 교설에서는 부처님이 맞잡전의 연등불 때

문입니다. 요즈음은 부처님이 아쇼카보다 100년 정도 빠르리는데 합의되고 있습니다.

진월: 교수님께서 일생동안 불교를 연구하시고 가르치신 입장에서 불교에 대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한국불자 수행에 감명

자이니: 나의 불교연구는 매우 고무적이었고 보람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경전들을 읽으며 심도 있게 이해하면서 기쁘고, 불교 연구는 나의 경력에 의미를 주었습니다. 경전읽기는 큰 건물들 지으려는 이에게 첫번의 벽돌과 같은 시작으로 생각되어야 하겠습니까.

진월: 교수님은 지계나 참선 등 어떤 수행을 하시고 계십니까?
자이니: 나는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전에 쓰

로 불교의 매우 보람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불교인들에겐 세가지 기본 수행이 있습니다. 즉 도덕적 생활 윤리철학인 지계, 정신적 생활을 추구하는 방법의 선정, 실상의 앞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 세가지의 종합으로 불교는 상당히 이바지 할 것입니. 불교는 항상 어느 곳에서도 유효충돌이 없었던 세계종교입니다. 불교는 결코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며 다른 이들을 개종시키려하지 않았습니. 불교는 평화적으로 포교해 왔으며 오직 가르치기만 했습니. 나는 부처님의 평화적 교화 방법이 미래에 높이 평가되고 환영 될 줄 믿습니.

진월: 끝으로 불교도 경건주간에 즈음하여 한국 불교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이니: 나는 한국에 가서 그들이 비범하게 불교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열성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 사회발전과 진보가 서양화로 잘못 인식되는 때에 불교도들이 단순 소박성, 자비 계발, 친목 평화 등의 불교적 가치를 소중히 잘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명화, 개공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범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